

광주-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오늘 '조기건설 국회포럼' 개최

6조 투입... 文대통령 공약 채택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전환 예정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3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10개 지방자치단체(광주시, 대구시,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와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해당 지역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 필요성, 내륙지역 어려움과 상생을 위한 방안, 남북철도와 연계 통한 남북경협사업의 수혜지역 확대, 사업 조기추진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포럼은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의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달빛내륙철도 구상'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 광주대 최완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6조원 이상을 투입해 양 도시 간 191km



구간을 고속화철도로 건설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했으며,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됐다.

특히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달빛내륙철도 건설추진협의회'와 올해 3월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지자체장 협의회' 등을 꾸리며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모으고 지난 6월부터는 자체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국비확보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광주시 등 10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신규 사업으로 전환시킬 예

정이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광주~대구는 1시간 생활권은 물론 초광역 남북경제권 형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더불어 광주시와 대구시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의 분위기에 맞춰 남북철도와 달빛내륙철도를 연계, 향후 남북경제협력사업 전체효과를 제고하고 영호남까지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해 남부 신경제권을 형성하고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를 넘어 유럽과 교류하는 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광주=오종일 기자 raser506@metroseoul.co.kr

경기도 고교생 90% “꿈의 대학, 진로개척에 도움”

경기도교육청이 고교생들의 꿈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경기 꿈의 대학' 프로그램에 도내 고교생 9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7월 5일 2018년 1학기 꿈의 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경기 꿈의 대학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꿈의 대학은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1학기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매 학기 인문사회, IT, 심리, 보건의료, 항공 등 다양한 강좌로 진행된다.

2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꿈의 대학에 참여한 것이 진로개척에 도움이 됐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 비율이 90.2%에 달했다. 1학년의 88.7%, 3학년의 93.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꿈의 대학이 방과 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90.9%로 높았으며, '꿈의 대학에 참여하는 것이 대학 진학에 도움된다'는 답변도 92.2%로 나왔다.

다만 꿈의 대학 강좌를 다시 듣게 될

경우 사교육을 병행하겠다고 한 학생들의 비율이 39.3%로 집계되면서 많은 학생이 입시 제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기도 했다.

일부 강좌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낮은 출석률은 경기도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담당 강사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6월 말 기준 '12차시 이상 출석한 학생이 70%에 미치지 못했다'는 답이 44.5%에 달했다.

꿈의 대학 과정을 이수하려면 총 20차시 중 14차시 이상 참석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모둠별 토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이 필요한데, 출석률이 저조하면 원래 계획대로 강의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올해 1학기 꿈의 대학에서 개설된 강의는 모두 1041개로, 2만2812명이 수강했다. 91개 대학(캠퍼스 기준)과 19개 전문·공공기관이 참여해 강사진과 강의내용을 제공했다.

/수원=김승열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원힐링데이 '난타' 공연
인천시교육청 교원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지난 1일 남동소래아트홀(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관내 유·초·중·고 교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문화가 있는 교원 힐링데이 '난타' 공연을 개최했다. 공연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린 비언어극인 '난타'로 송승환의 오리지널 난타 공연팀이 공연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경기, 최저임금 대응... 中소지원 1200억 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 증액
추석 특별경영자금도 200억 늘려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운전자금을 1200억원 증액 운용하기로 했다.

도는 원부자재 비용, 물품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금 규모를 당초 7천억원에서 8천200억원으로 1천200억원 늘렸다고 2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포함한 도의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8천억원에서 1조9천200억원(운전자금 8천2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올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8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린 바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저금

리 정책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20곳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다.

한편, 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추석 특별경영자금도 당초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kimsy@

광주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실태조사

광주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28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오는 11월 14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앞둔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관보 또는 시보,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체납정보를 공개한다.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광주시는 그동안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384명(체납액 213억원)의 법인·개인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자가 오는 1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받거나 9월 말까지 체납세금을 전액 또는 30% 이상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오종일 기자

경기도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

경기도가 관공공사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2일 도는 이달부터 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도가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 단계부터 지급단계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전자 시스템이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를 비롯해 중소 하도급업체와 장비·자재업체가 대금 처리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홍보를 요청하고, 대상 업체들에 월 1회 이상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자연순환농법으로 '유기농 배' 인증

함평군 박창범씨, 유기농인증 획득

과수 작물은 특성상 친환경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자연 순환농법을 실천해 '유기농 배'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있어 화제다.

전남 함평군 함평읍 박창범(45) 씨는 1ha규모의 농장에서 '순환농법'으로 배를 재배해 2017년 한국농식품인증원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

유기농산물 인증은 토양 재배관리와 작물의 병해충 방제, 토양 분석, 수질 분석 등 아주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과수 품목은 친환경재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 줄곧 배농사만 지어온 베테랑 농사꾼 박 씨의 얘기는 다르다. 20년 이상 배만 재배해왔으며 특히 8년 전부터는 친환경농법을 실천해왔다. 처음에는 관행농업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나 유기농 선도 농업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다.

과수원에 자라는 잡초를 없애지 않고 호밀,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을 재배해 지력을 증진시키고 토양에 양분을 공급했다. 장어액비, 돼지감자풀추출물, 양파추출물 등 식물이 가진 다양한 성분은



박창범(남, 45세)씨가 한국농식품인증원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배를 따고 있는 모습 /함평군

추출해 석회와 유황 혼합물에 섞어 살충 및 살균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생산한 유기농 배는 유기농가 20여 명이 함께 설립한 한반도유기농배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서울과 지역 급식으로 나눠 판매하고 있다. 배종과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과일이 안정적으로 판매되도록 학교 급식과 방과후 학교 과일급식 지원 등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유기농 과수 성공사례를 표준농법으로 매뉴얼화해 과수 등 친환경 재배농가에 적극 전파함으로써 유기농업을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함평=양수영 기자 ysn613@